

언론이 에이즈를 잘 알려야

언론은 에이즈를 일반에게 잘 알려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나치게 공포의 질병으로 부각시키고 감염과정을 흥미위주로 전달하여 자칫 일반 대중이 에이즈를 잘못 이해하도록 할 위험도 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전달된다. 특히 최근에 언론매체의 발전으로 정보의 신속성과 파급효과는 이전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빠르고 엄청나다. 그런데 정보의 정확성이나 깊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역전히 사실이 과장된 정보가 많으며 심지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언론매체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우리 사회의 몫이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언론매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제공자인 언론기관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참신하고 소중한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간혹 사실이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에이즈와 관련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 과장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언론매체가 일반 대중에게 에이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의 에이즈 사업을 독려하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에이즈를 지나치게 공포의 질병으로 부각시키고 감염과정을 흥미위주로 전달하여 일반 대중이 에이즈를 잘못 이해하도록 한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일반 대중은 에이즈 이야기만 나오면 정확한 이해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져 보인다고 한다.

최근에는 아직 임상실험 초보단계에 있는 에이즈 치료제를 치료 효과가 탁월한 최종 상품으로 소개하는 사례

도 있다. 이런 보도는 에이즈 감염인 및 그 가족에게 치료 완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에이즈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므로 더 이상 예방이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일반인에게 심어주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언론매체가 에이즈 문제를 다룰 때는 신중해야 되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에이즈가 정복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이즈는 예방이 최선의 치료제라는 점이다.

언론매체가 에이즈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일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늘 고려해야한다. 언론매체가 에이즈 문제를 다룰 때는 일반 대중의 관심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흥미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에이즈 상담안내

☎ 060-700-6191(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은 060없이 사용 가능)

☎ <http://www.aids.or.kr>

✉ kada@aims.or.kr

(02) 675-8060(서울),
(051)621-0777(부산)

(02) 675-4114(서울),
(051)621-0444(부산)

